

2020년 3월 30일(월)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              |                      |        |
|--------------|----------------------|--------|
| 예배를여는말 ..... | 인도자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같이    |
| 찬송 .....     | 552장 .....           | 다같이    |
| 기도 .....     | 김채영 집사               |        |
| 성경봉독 .....   | 누가복음 17:11-19 .....  | 인도자    |
| 설교 .....     |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 | 이요한 목사 |
| 기도 .....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 다같이    |
| 찬송 .....     | 435장 .....           | 다같이    |
| 축도 .....     | 설교자                  |        |

## 552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3월 31일(화) 기도 담당 : 이상수 집사

### ◆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17:11-19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3월 30일(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접경 지역에 가고, 만나기를 기피하는 나병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새문안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아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속히 종식되게 하심으로 기쁘게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들과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욱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역자들, 해외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